

사랑실천 운동 앞장서는 포천소방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성금 50만원 전달



포천소방서는 9월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어렵고 힘든 노인분들에게 쌀달라고 성금(50만원)을 전달했다.

포천소방서(서장 임정호)는 9월 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지부장 이금중)를 방문해 어렵고 힘든 노인분들에게 쌀달라고 성금(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모은 성금은 포천소방서 직원들이 매일 급여에서 천원씩을 공제하여 모은 것으로 매년 사회복지

시설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9월10일에도 포천소방서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아동, 독거노인 등 21세대에 쌀38포(20KG)와 라면 38BOX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포천시새마을회 쌀 1만874kg 전달

포천시새마을회(회장 강태선)는 9월11일 오후 2시 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서장인 포천시장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 강태선 회장, 임동직 시 협의회장, 최계옥 시 부녀회장, 읍면동 협회·부녀회장 및 새마을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마을지도자, 포천시 공무원, 관내 초·중·고생이 모은 쌀 1만874kg을 관내 불우시설(18개소 3천84kg),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7천790kg)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쌀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새마을회는 9월11일 오후 2시 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추천! 이야기 한마당

엄마 친구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아이를 뒤통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아저씨, 자장면 두 그릇만 주세요."

"언니는 왜 안먹어?"

"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인혜 아니냐? 인혜 맞지?"

"네, 맞는데요." 영선의 갑작스런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해 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나는 모양이구나. 그지나 엄마,아빠 없이 어떻게 살니?"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다.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굳어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구...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 만큼 걸어가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선의 남편이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

해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애들이예요. 엄마, 아빠가 없

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울 수도 있고 해서..."

"그렇군, 그런 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 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문의 011-342-5834)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본지 지문위원장

모현센터 방문 성금 전달식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20만원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추석을 앞두고 9월10일 오전11시 노인복지시설인 모현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를 방문해 저희 평통에서 모현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를 방문해 성금 20만원을 이곳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0일 노인복지시설인 모현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를 방문해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

독거어르신들의 행복한 가을 나들이

포천시 영중면 직원 1% 나눔 운동 계속돼

포천시 영중면사무소(면장 이인화)는 공무원들이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혹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을 돕고 나누며 섬기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매월 지급되는 봉급에서 일정액을 기탁하는 아름다운 1% 나눔 운동에 자발적인 동참 속에 나눔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중사랑 1% 나눔 사업은 지난 5월에 실시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가정 아동 및 모자가정아동 등 20여명에게 대중문화 관람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나들이에 이어, 추석명절을 앞

두고 9월6일 영중면 지역 내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15명을 모시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중면 적십자(회장 과복준) 자원봉사자 8명과 함께 영북면 평강식물원과 일동면 부식물원을 돌아보고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불효자는 읍니다' 관람을 통해 혼자 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평강식물원과 부식물원은 무료 입장, 포천시는 차량지원을 반월아트홀에서는 티켓할인 등을 후원해 소외된 어르신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영중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6일 영중면 지역 내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15명을 모시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⑨

웃음을 상상으로 만들자

지금 당신의 손엔 아주 신 레몬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한 입 크게 먹었다 상상을 하자. 그러면 입안 가득히 침이 고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웃음도 상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드는 억지 웃음도 웃음의 효과는 똑같다. 뇌는 단순해서 진짜 웃음인양 엔돌핀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상대방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웃으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함께 웃으며 칭찬하게 된다. 이렇듯 칭찬의 효과도 웃음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번 웃으면서 싸움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싸움이 될까? 웃음이 먼저 나와서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많이 나고 속 상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큰 소리로 무조건 웃어 보자. 그러면 속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분이 자신의 속 상한 이야기를 한다. 시조부님께서 와상 환자였다. 몇년 동안을 계속 병 수발을 하니 저절로

화가 난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에 애잔함마저 느끼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져다 주면 찢어 버려서 일을 크게 만들고 힘들어서 그만 하고 싶다면 사심도 안된 손부가 손을 잡으며 하는 이야기 다 들어 주니 들어 준 것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찢어 웃음을 잃고 산다. 별것 아닌 것이 특별한 것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같이 한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자. 흔하게 어르신들께 "첫날밤 생각하세요"하면 저절로 웃음소리를 내어 주신다.

첫날밤이라 하면 어르신들마다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다 조금 지나 "웃소리로 좀 내세요" 하면 웃음소리가 저절로 커져서 대소에 이어서 박장 대소로 진해가 된다. 이렇듯 일부러 웃음을 만들고 상상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는 생각만 가져도 웃음이

넘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웃음은 원료가 없다. 또한 공정도 없다. 의료비도 30%나 절감 할 수 있다. 웃음은 돈이 안 드는 만병 통치약이다.

유명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하고, 표정이 밝거나 늘 웃는 인상이다. 최근 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이에 경영자들도 유머나 웃기는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면접시 면접관을 웃겨보라는 테스트도 있다고 한다.

웃음이 그 만큼 우리 생활에 활력소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 상상 속에서 늘 웃음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 018-222-1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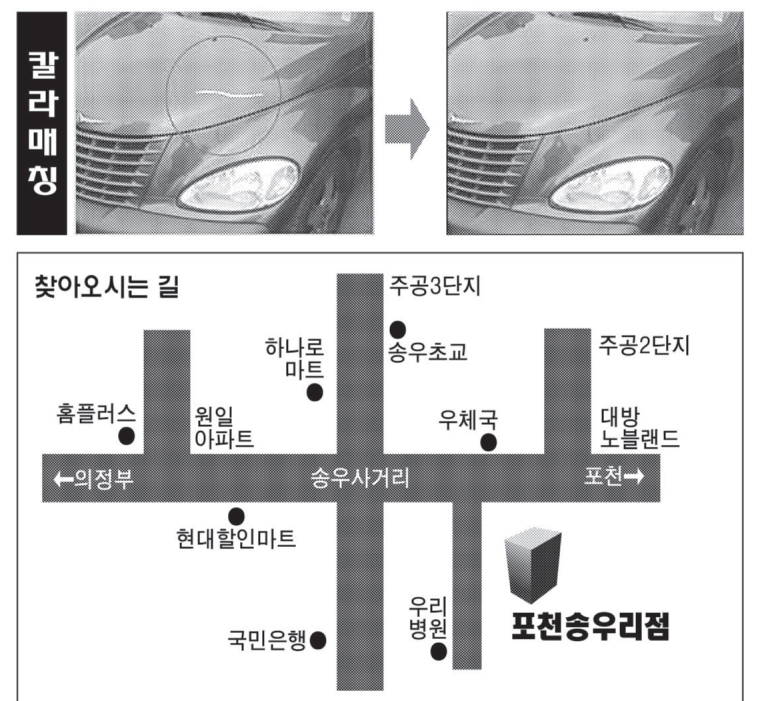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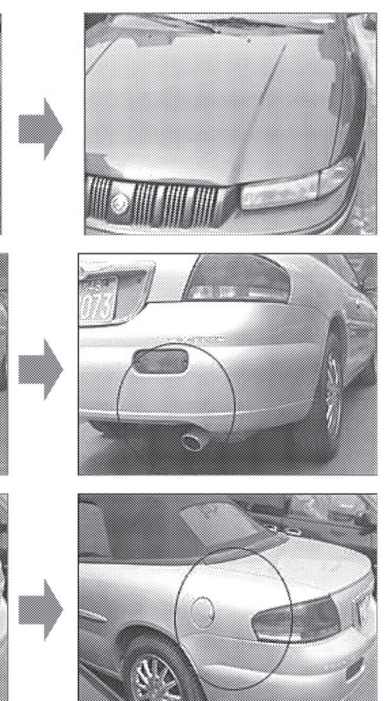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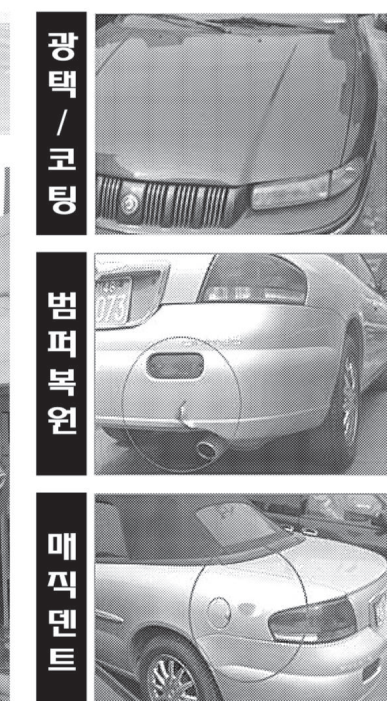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브랜드 매직터치 포천송우리점 OPEN

자동차 외장관리 및 외형복원 전문브랜드 보험수리전문/수입차량전문

ISO 9001 인증업체



홈집제거도장방법
기술특허획득업체



매직터치 포천 송우리점 대표 전제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93-3
휴대폰 : 010-2046-2295

전화 : (031)541-2516(대)
홈페이지 : www.mtdcs.co.kr

팩스 : (031)541-2518
이메일 : jeon0359@naver.com